

## 한글을 공부하는 이유

<제 9 회 워싱턴한국학교 백일장 장원작>

장은영 (성 김안드레아 한국학교, 세종반)

저는 떨립니다. 어떻게 해야 감동적인 것을 쓸 수 있을까?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내가 느끼는 것을 똑같이 느낄 수 있을까?

이 답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냥 제가 솔직히 느끼는 것을 이 종이에 놓으면 된다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한글을 공부하는지 솔직히 쓰겠습니다.

“가기 싫어”

어머니께서 한국학교를 시작해야 한다 라고 하실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꼭 자랑스런 한국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소리치고 싫다고 해도 엄마께서는 한글이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거라고 하면서 저를 한국학교에 보내셨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엄마를 미워했습니다.

한글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제 부모님들 때문이지만 아직도 한글을 공부하는 이유는 제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한글공부를 시작한지 8 년이나 지났어요. 그 시간이 마치 겨울바람같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 빠른 시간 동안 한글이 왜 중요한지 배웠고 저한테 무슨 소용이 있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한국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사람이 자기 나라 말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자기가 미국인이라 해도 그 사람의 몸이랑 피는 한국의 몸이랑 피입니다. 저는 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되자 한글을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어요.

한국학교에서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라는 바로 한국이구나!’ 라고 믿게 됩니다. 모든 한국학교 학생들도 이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을 공부하면 많은 도움이 되고 자기 자신도 더 잘 알게 되어요. 한글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제 부모님들이랑 한국에 계시는 가족에게 편하게 말을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재미있게 보는 한국 드라마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넌 한국사람이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탕이나 노는 것을 좋아하듯이 저는 글 쓰는 것을 많이 즐깁니다. 놀 시간에는 글짓기, 이야기, 그리고 시를 자주 씁니다. 그래서 저는 꼭 작가가 되고 싶은데 아무 작가가 되기는 싫습니다. 한글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가가 되기 위해 한글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님이랑 선덕여왕님은 한국을 이끌었어요. 저도 이런 훌륭한 왕들처럼 제 말이랑 글로 제 책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이랑 생각을 이끌고 싶습니다.

저는 한글을 공부하게 되어서 생각이 넓어졌고 '내가 정말 자랑스럽고 무궁화같이 아름다운 한국인이구나'라고 느낍니다. 제 부모님께서서는 한글을 배우기 싫다는 아이를 한국학교에 보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글을 공부하게 되어서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저는 모든 한국학교 학생들이 저와 같은 마음을 먹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꼭 한글을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한국인이 되겠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보통 한국학교 학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30일. 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백일장 장원을 수상한 장은영 양입니다.